

왜! 사료가격을 올려야 하는가?

<한 국 사 료 협 회>

배합사료 가격이 양측에 미치는 영향과 양측 경영의 합리화가 사료에 미치는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70. 11월이후 이제까지 배합사료 가격의 양등요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정을 보류하고 축산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으나 금번 정부당국의 환율인상으로 부득이 가격 조정을 않을 수 없는 업계의 고충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71년 6월 28일자로 시행된 당국의 환율인상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지난 7월 3일 사료협회 임시 총회에서는 배합사료 가격 조정에 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협의 되었습니다.

2. 협의된 내용

가. 다음 배합사료 가격의 양등요인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현행 배합사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1970. 10~11월에 조정된 가격이므로 1971. 7현재 가격은 종전 가격에 비하여 10~13%의 양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0%선에서 배합사료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며,

나. 이와같은 배합사료 가격조정은 수입원료의 재고량과 실지 지불한 달라화 적용대수를 감안하여 종전환율로 수입된 원료는 종전 가격으로 생산판매하고 인상환율로 구입한 원료는 인상환율을 적용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다. 그러나 종전환율로 수입한 원료는 대부분이 7.5~10일 사이에 소진될 전망이며 정부 보유 의화로 7.4(인천) 7.6(부산)에 수입된 옥수수도 모두 인상된 환율을 적용받게 되었을뿐 아니라 49% 규격품 대두박의 수입가격은 톤당 42,765원(단백질 %당 872원)이나 수입대두에서 생산된 소위 국산 대두박은 44% 규격품이 톤당 42,000원(단백질 %당 954원)으로서 사료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9.4% 이상

이 고가이므로 국산대두박 이용으로 종전에 비하여 환율인상 13%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값비싼 대두박을 쓰게되는 결과가 된다.

라. 국산 단백질 사료와 기타 부원료 품귀현상과 가격상등은 더욱 배합사료 가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즉 국내단백질 사료자원은 극히 제한되어 연간 증가량은 사료 수요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면 1970. 1~4월중 배합사료 생산량은 협회분이 93,251%이었으나 1971. 1~4월중 배합사료 생산량은 155,187%으로서 66.4%로 급증한 결과 임박, 호박, 유채박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부원료가 70년 11월에 비하여 25%에서 70%까지 등귀하였기 때문에 이와같은 가격상등과 품귀현상은 값비싼 대두박 이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마. 국산옥수수 이용

1970년 11월에 비하여 6월 수입분 옥수수 가격은 톤당 5달러정도 하락하였으나 6~8월 사이에 국내 사료업체는 톤당 40,000원의 국산 양특 옥수수를 수입 옥수수의 1할 이상을 대체 이용하거나 이의 보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가격 인상의 요인만을 남겨 놓았다.

바. 기타 배합사료 가격 양등요인

- 1)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맥피, 사료첨가제 무기물첨가물(인산 칼슘 등) 및 지대등이 다시 양등요인이 될수 있으며
- 2)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의 수입 전망을 보건대 1970년도의 옥수수의 수출국인 미국의 옥수수 작황이 가뭄과 엽고병 만연으로 당초 생산목표량 49억 bushel에 비하여 20%가 감소한 40억 bushel이 생산되었고 반면 미국의 옥수수 소요량은 유사이래 최고로서 47억 bushel에 달하여 옥수수 재고량 감소로 7월부터 생산시기인 10월 이전까지 양등될 전망이며,
- 3) 특히 미국 서해안 지역에서 7월 2일에 발생한 부두노조 파업과 10월 1일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걸프지역의 부두 노조 파업은 더욱 사료의 수입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